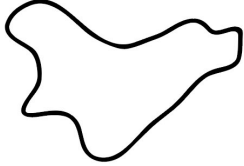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Seoungbuk Community-Social Economy Center



성북구 지도



웃는 사람



연결하다·협동하다·성장하다



공론



연계



융합



변화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로고 (Designed by 명규플레이트/영엔터테인먼트/오현주)

성북구 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 활동성과에 기반한 마을사회적경제 모델 수립(요약)

| 강세진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 wisdomcity@saesayon.org)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2019년 8월부터 11월까지 '성북구 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 활동성과에 기반한 마을사회적경제 모델 수립'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합니다. 전체 보고서(원문)는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원문 : <https://sbnet.or.kr/publications/46954/>)

연구의 목적

2012년부터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하였다. 이후, 성북구에 서는 수 많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주민들에 의해 제안되었다.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이 설립되기 시작하였 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활동들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는지 분석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연구의 내용

위와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룬다.

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 현황 분석

- 마을공동체 사업 및 사회적경제주체 수
-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 마을공동체 사업의 경제활동 (보조금 및 자부담에 따른 소비지출)

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 연계과정 분석

- 활동간 연관관계를 연계(동일시점), 흐름(다음 시기 활동과의 연계), 변화(다른 관심주체의 활동에 대한 참여)로 구분하여 분석
- 행동동별로 어떤 사업이 어떤 사업과 연계되는지 분석
- 사회관계망분석 기법 적용

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 영향분석 모형 개발

- 사회적 영향 평가 방법론 고찰
- 영향분석 모형 구조 설정 (사회계정행렬)
- 영향분석 모형 구축
- 성북구 공동체 활동에 따른 영향분석

분석대상

성북구 전역의 마을공동체 사업 및 사회경제적 조직

분석기준 및 범위

이 연구는 마을공동체 및 사회적경제의 정량적 현황을 분석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마을공동체 및 사회적경제 부문에서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정량자료는 매우 부족하다. 한정된 연구기간에 성북구 전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인터뷰 등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연구를 수행한다.

분석의 시간적 범위는 제도적 지원이 본격화 된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이다.

연구의 유형

이 연구는 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의 성과를 양적으로 분석하는 계량분석에 해당한다. 계량분석의 단점을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 미시분석과 거시분석을 병행한다. 기본현황과 영향분석은 거시적 차원에서 다루고, 연계과정의 분석은 미시적 차원에서 다룬다.

자료의 구축

1차자료

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센터,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등의 협조를 받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제안서와 결과보고서를 코딩한 자료를 구축하여 1차 자료로 한다.

분석자료

1차자료를 영향관계분석에 적합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재구축한다. 이 과정에서 누락된 정보가 있을 경우 보완한다. 확인이 가능한 경우 원본을 참조하고 불가능한 경우 원단위법, 추세연장법 등을 통해 보정한다.

분석방법

자료구축

관계형 자료의 분석에 유용한 SQL(Structured Query Language)과 통계언어인 R을 활용한다. SQL의 플랫폼으로 MS-ACCESS를 사용하며, 통계처리 플랫폼은 오픈소스 통계패키지인 R이다.

현황분석

수리분석이 가능한 자료는 연도별, 동별, 관련주제별로 집계한다.

사회관계망분석

부문간 이동량 시각화에 유용한 chord 다이어그램과 흐름(flow)의 분석에 적합한 Sankey 다이어그램을 활용한다.

같은 시기의 연계는 chord 다이어그램으로 시각화한다.

다른 시기의 연계에 해당하는 관계의 흐름은 Sankey 다이어그램으로 시각화한다.

다이어그램과 함께 관계표(adjacency matrix)를 제공하여 이해를 돕는다.

모형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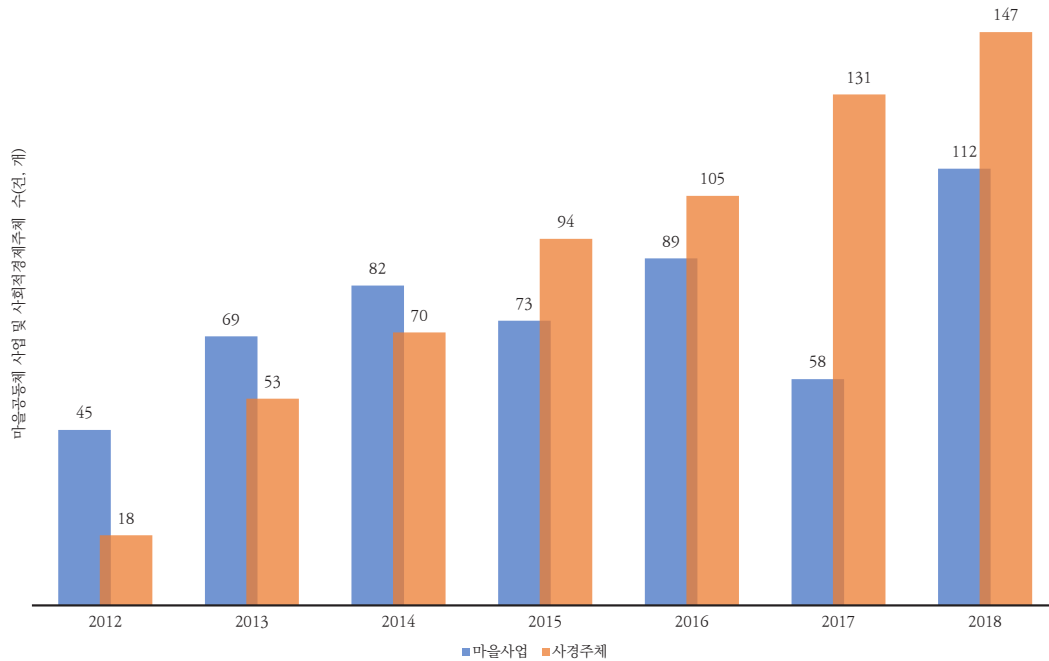
영향분석 모형은 레온티에프 승수(multiplier)를 구현하기 위해 행렬구조로 구축한다.

MS-EXCEL 등 흔히 접할 수 있는 도구로도 풀이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간략히 구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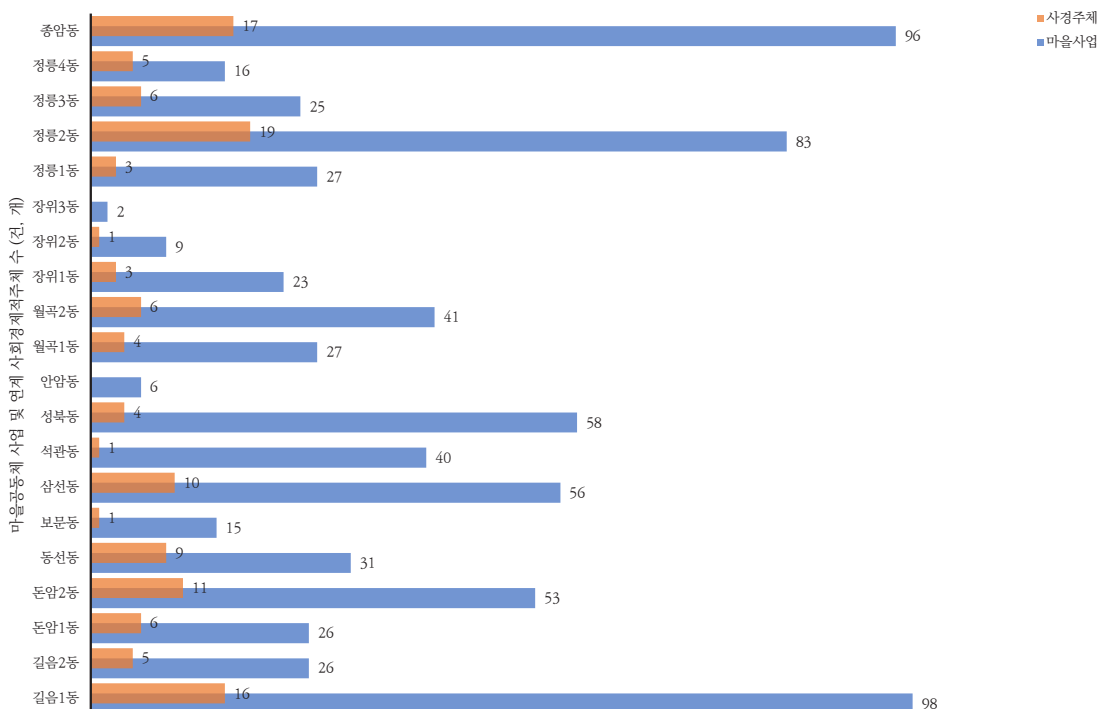
연구결과 요약

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 기초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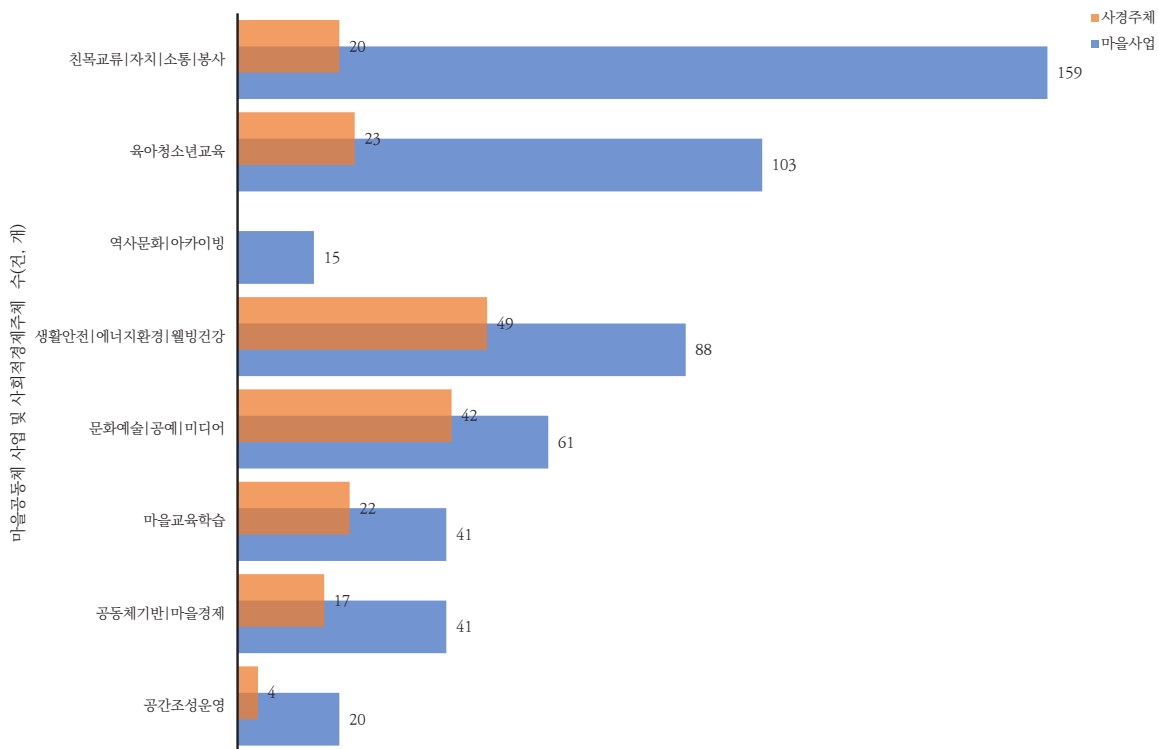
첫째,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참여한 제안자가 제출한 자료(제안서,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와 사회적경제주체 기업공개자료를 활용하여 기초현황을 분석하였다.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마을공동체 사업은 2012년 45건, 2013년 69건, 2014년 82건, 2015년 73건, 2016년 89건, 2017년 58건, 2018년 112건, 총 528건이다. 같은 기간 성북구 내 사회적경제주체는 2012년 18개, 2013년 53개, 2014년 70개, 2015년 94개, 2016년 105개, 2017년 131개, 2018년 147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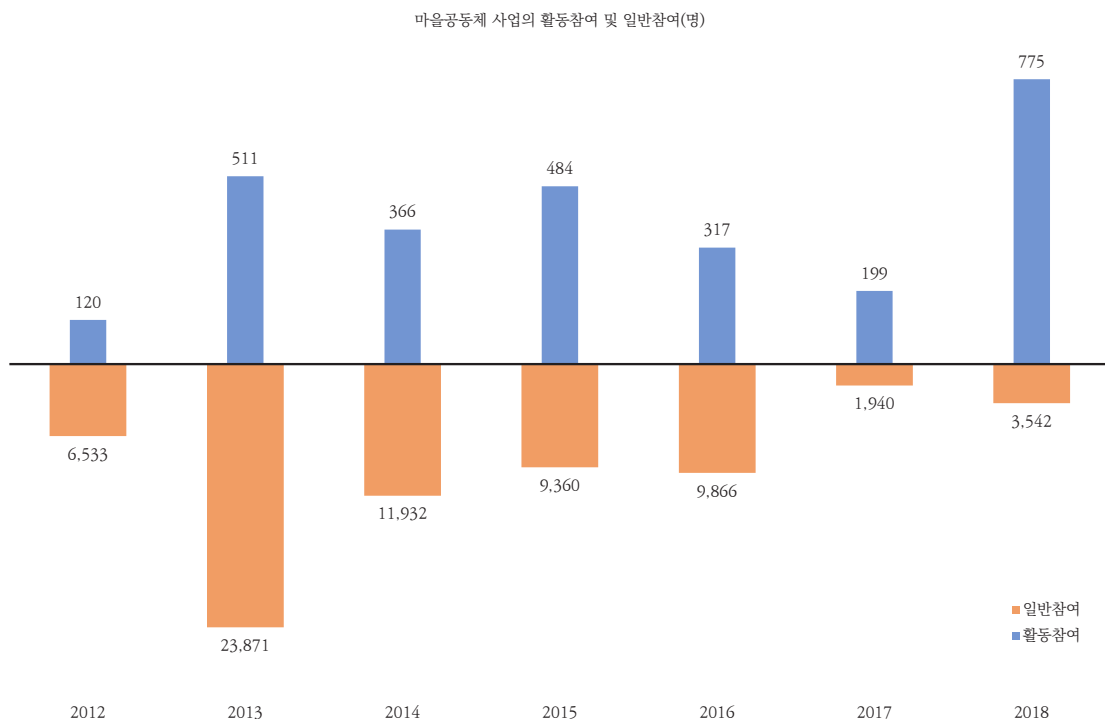
행정동별 현황을 보면 마을공동체 사업은, 길음1동 98건, 길음2동 26건, 돈암1동 26건, 돈암2동 53건, 동선동 31건, 보문동 15건, 삼선동 56건, 석관동 40건, 성북동 58건, 안암동 6건, 월곡1동 27건, 월곡2동 41건, 장위1동 23건, 장위2동 9건, 장위3동 2건, 정릉1동 27건, 정릉2동 83건, 정릉3동 25건, 정릉4동 16건, 종암동 96건이었다. 한편 이 사업들과 대표자 등이 연관을 맺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사회적경제주체를 집계한 결과, 길음1동 16개, 길음2동 5개, 돈암1동 6개, 돈암2동 11개, 동선동 9개, 보문동 1개, 삼선동 10개, 석관동 1개, 성북동 4개, 월곡1동 4개, 월곡2동 6개, 장위1동 3개, 장위2동 1개, 정릉1동 3개, 정릉2동 19개, 정릉3동 6개, 정릉4동 5개, 종암동 17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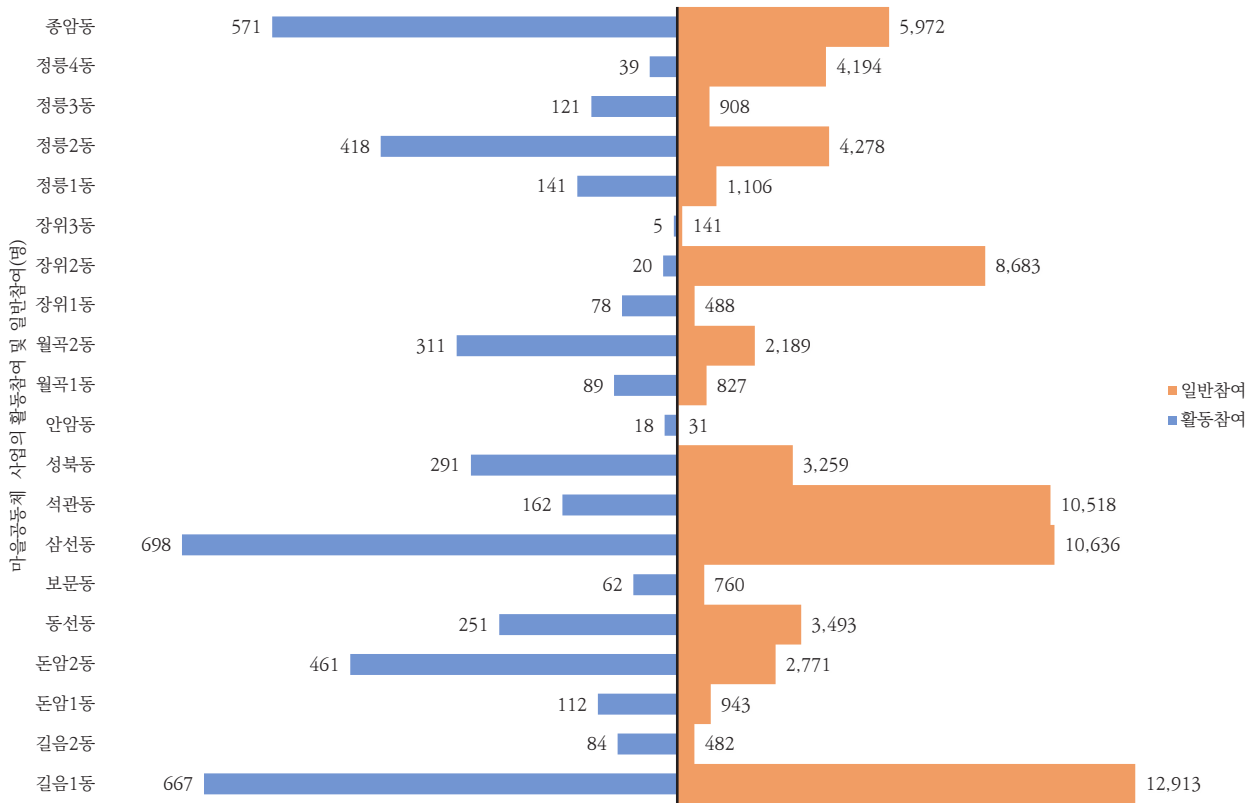
관심주제별 활동 현황을 보면 마을공동체 사업은 공간조성운영 20건, 공동체기반|마을경제 41건, 마을교육학습 41건, 문화예술|공예|미디어 61건, 생활안전|에너지환경|웰빙건강 88건, 역사문화|아카이빙 15건, 육아청소년교육 103건, 친목교류|자치|소통|봉사 159건이었다. 사회적경제주체의 관심주제는 공간조성운영 4개, 공동체기반|마을경제 17개, 마을교육학습 22개, 문화예술|공예|미디어 42개, 생활안전|에너지환경|웰빙건강 49개, 역사문화|아카이빙 1개, 육아청소년교육 23개, 친목교류|자치|소통|봉사 20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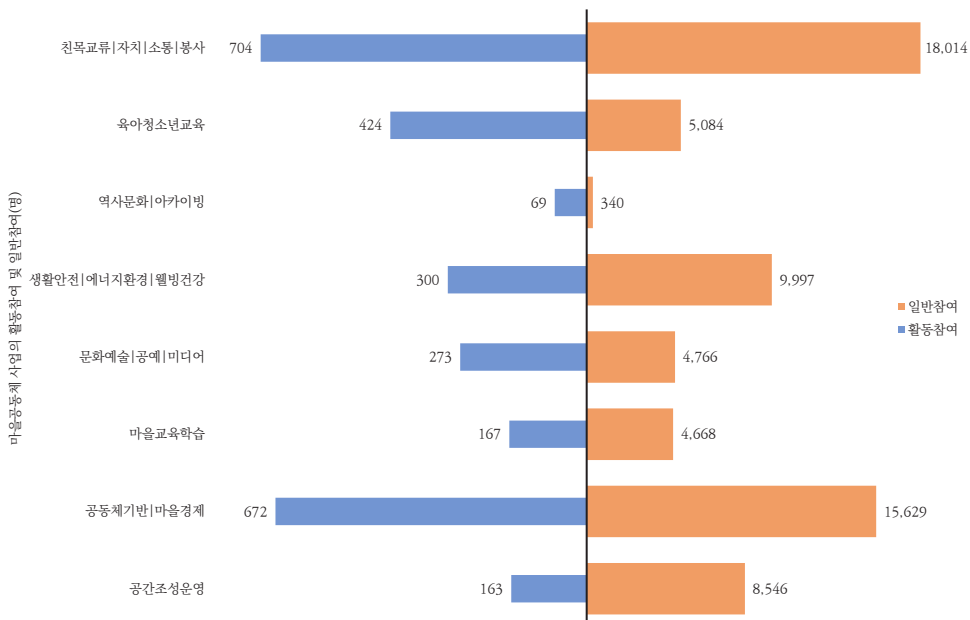
연도별 주민참여를 대표제안자 등의 활동참여와 행사 등에 참석한 일반참여로 구분하여 집계하였다. 활동참여는 2012년 120명, 2013년 511명, 2014년 366명, 2015년 484명, 2016년 317명, 2017년 199명, 2018년 775명, 총 2,772명이었다. 일반참여는 2012년 6,533명, 2013년 23,871명, 2014년 11,932명, 2015년 9,360명, 2016년 9,866명, 2017년 1,940명, 2018년 3,542명, 총 67,044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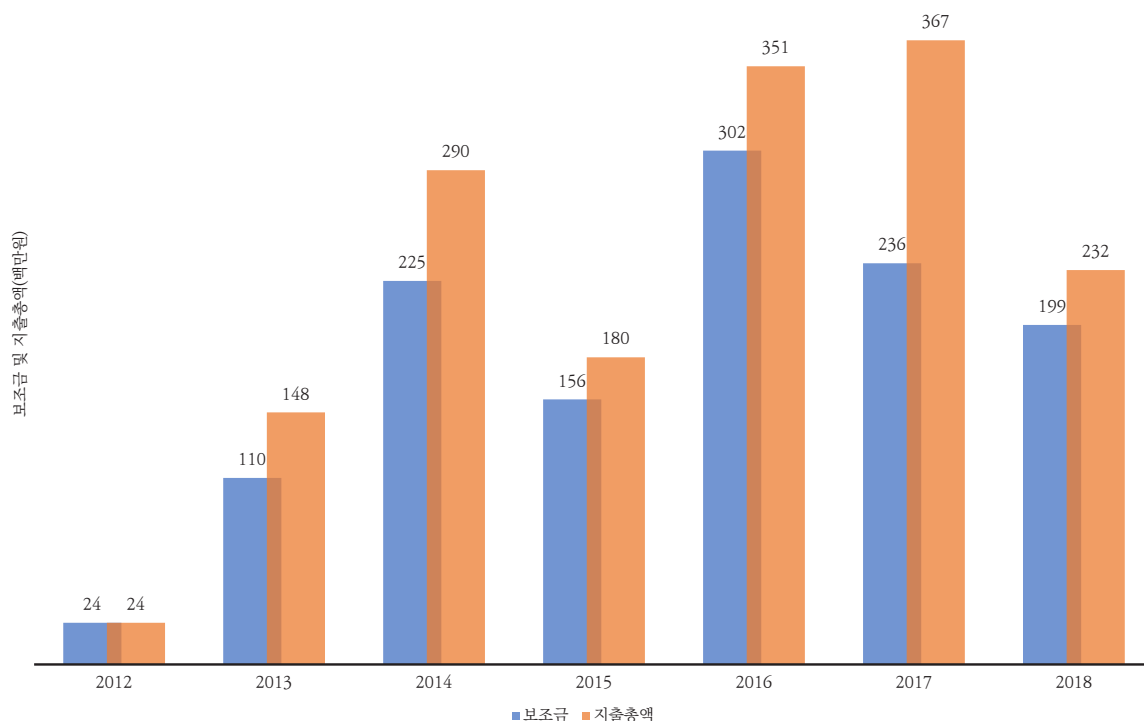
행정동별로 주민참여를 집계한 결과, 활동참여는 길음1동 667명, 길음2동 84명, 돈암1동 112명, 돈암2동 461명, 동선동 251명, 보문동 62명, 삼선동 698명, 석관동 162명, 성북동 291명, 안암동 18명, 월곡1동 89명, 월곡2동 311명, 장위1동 78명, 장위2동 20명, 장위3동 5명, 정릉1동 141명, 정릉2동 418명, 정릉3동 121명, 정릉4동 39명, 종암동 571명이다. 일반참여를 집계하면, 길음1동 12,913명, 길음2동 482명, 돈암1동 943명, 돈암2동 2,771명, 동선동 3,493명, 보문동 760명, 삼선동 10,636명, 석관동 10,518명, 성북동 3,259명, 안암동 31명, 월곡1동 827명, 월곡2동 2,189명, 장위1동 488명, 장위2동 8,683명, 장위3동 141명, 정릉1동 1,106명, 정릉2동 4,278명, 정릉3동 908명, 정릉4동 4,194명, 종암동 5,972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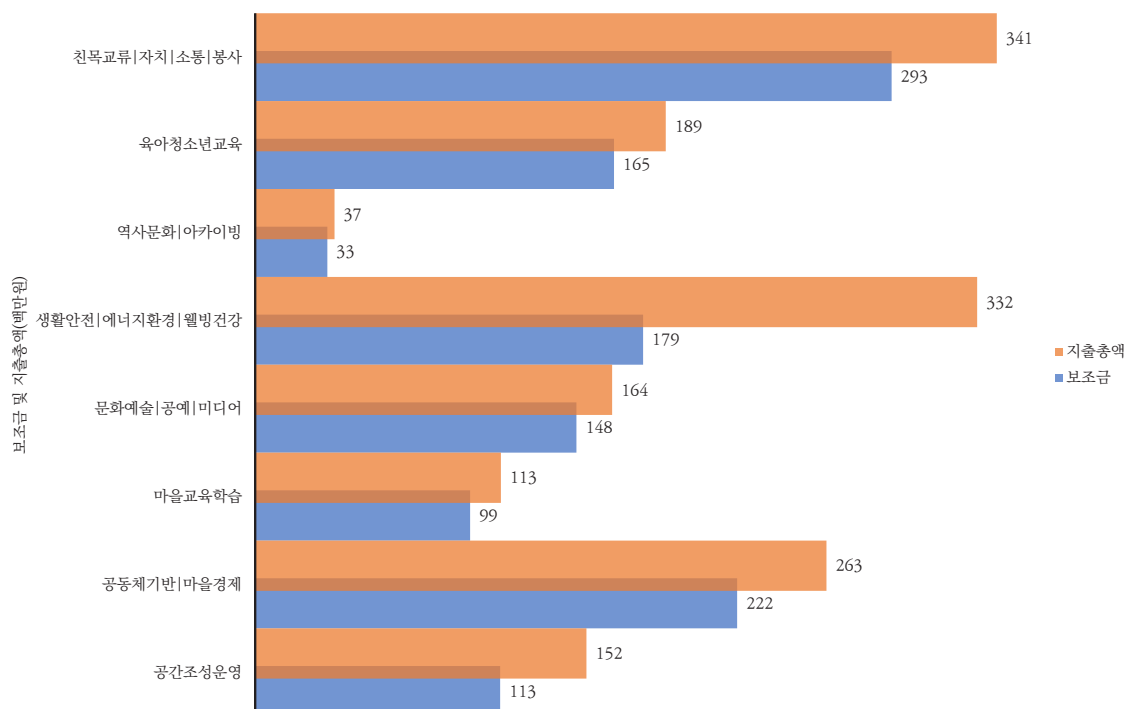
관심주제별로 주민참여를 집계한 결과, 활동참여자는 공간조성운영 163명, 공동체기반|마을경제 672명, 마을교육학습 167명, 문화예술|공예|미디어 273명, 생활안전|에너지환경|웰빙건강 300명, 역사문화|아카이빙 69명, 육아청소년교육 424명, 친목교류|자치|소통|봉사 704명이었다. 일반참여는 공간조성운영 8,546명, 공동체기반|마을경제 15,629명, 마을교육학습 4,668명, 문화예술|공예|미디어 4,766명, 생활안전|에너지환경|웰빙건강 9,997명, 역사문화|아카이빙 340명, 육아청소년교육 5,084명, 친목교류|자치|소통|봉사 18,014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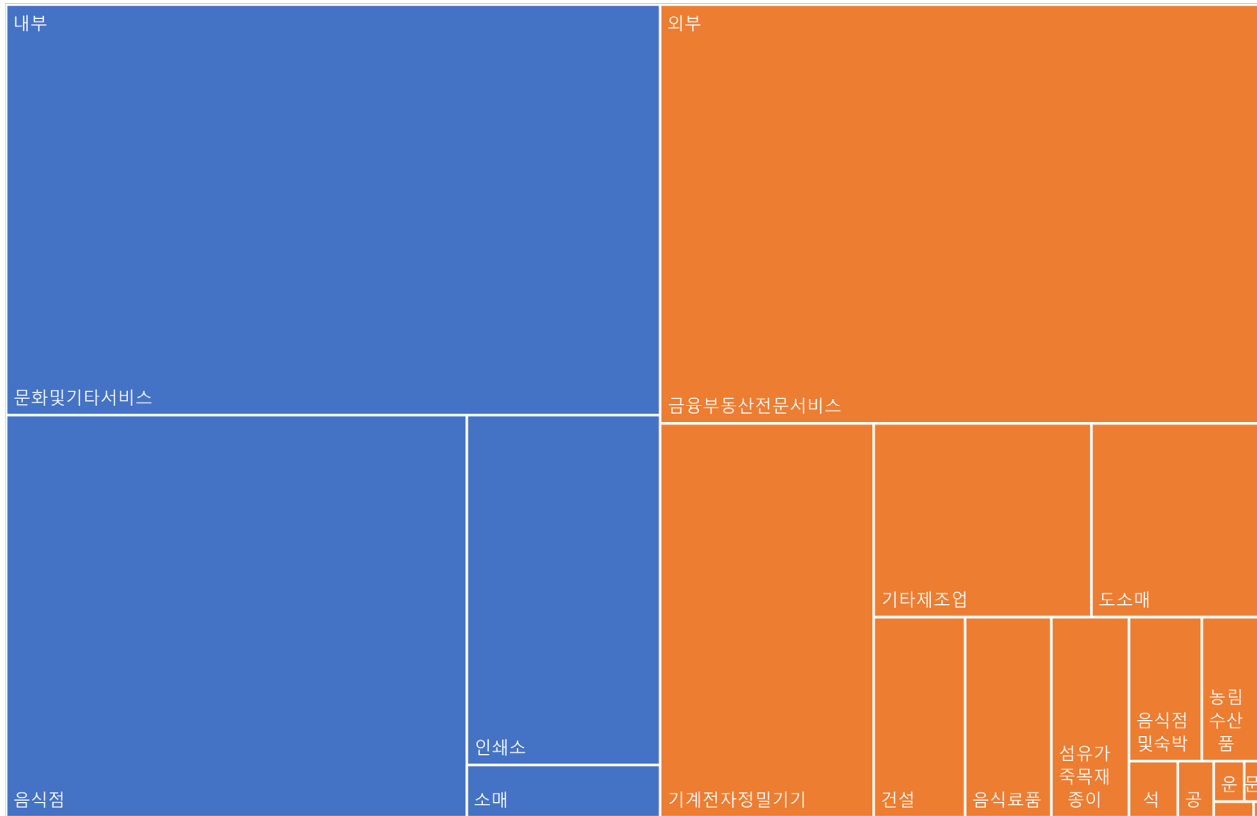
마을공동체 사업의 경제활동(보조금 및 자부담에 따른 소비지출)에 대해서 집계하였다. 연도별로 보면 보조금은 2012년 2,446만원, 2013년 10,950만원, 2014년 22,520만원, 2015년 15,563만원, 2016년 30,176만원, 2017년 23,554만원, 2018년 19,933만원, 총 125,142만원으로 집계되었다. 이에 따른 지출총액은 2012년 2,446만원, 2013년 14,795만원, 2014년 29,018만원, 2015년 18,037만원, 2016년 35,122만원, 2017년 36,651만원, 2018년 23,155만원, 총 159,224만원으로 집계되었다. 지출총액과 보조금의 비율을 살펴보면 2012년을 제외하면 1.16에서 1.56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심주제별 경제활동을 집계한 결과, 보조금은 공간조성운영 113백만원, 공동체기반|마을경제 222백만원, 마을교육 학습 99백만원, 문화예술|공예|미디어 148백만원, 생활안전|에너지환경|웰빙건강 179백만원, 역사문화|아카이빙 33 백만원, 육아청소년교육 165백만원, 친목교류|자치|소통|봉사 293백만원으로 집계되었다. 이에 따른 지출총액은 공 간조성운영 152백만원, 공동체기반|마을경제 263백만원, 마을교육학습 113백만원, 문화예술|공예|미디어 164백만 원, 생활안전|에너지환경|웰빙건강 332백만원, 역사문화|아카이빙 37백만원, 육아청소년교육 189백만원, 친목교류| 자치|소통|봉사 341백만원으로 집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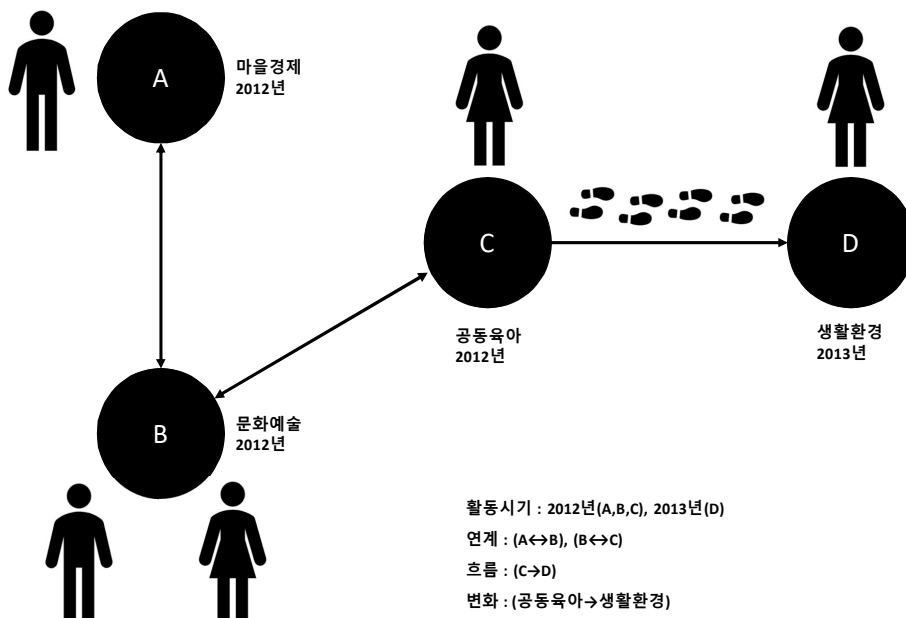


경제활동의 유형(보조금의 지출부문)을 마을 내부지출과 마을 외부지출로 구분하여 집계하였다. 마을 내부지출은 소매 9백만원, 음식점 159백만원, 인쇄소 58백만원, 문화및기타서비스 231백만원, 총 456백만원이다. 마을 외부지출은 농림수산물 7백만원, 음식료품 15백만원, 섬유가죽목재종이 13백만원, 석탄석유화학 2백만원, 광물금속 1백만원, 기계전자정밀기기 72백만원, 기타제조업 36백만원, 건설 16백만원, 도소매 28백만원, 운송서비스 1백만원, 음식점및숙박 9백만원, 정보통신방송 0백만원, 금융부동산전문서비스 216백만원, 공공교육보건복지 2백만원, 문화및기타서비스 1백만원, 총 418백만원이다. 외부지출에서 금융부동산전문서비스 부문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비교적 목돈이 드는 공간임차료가 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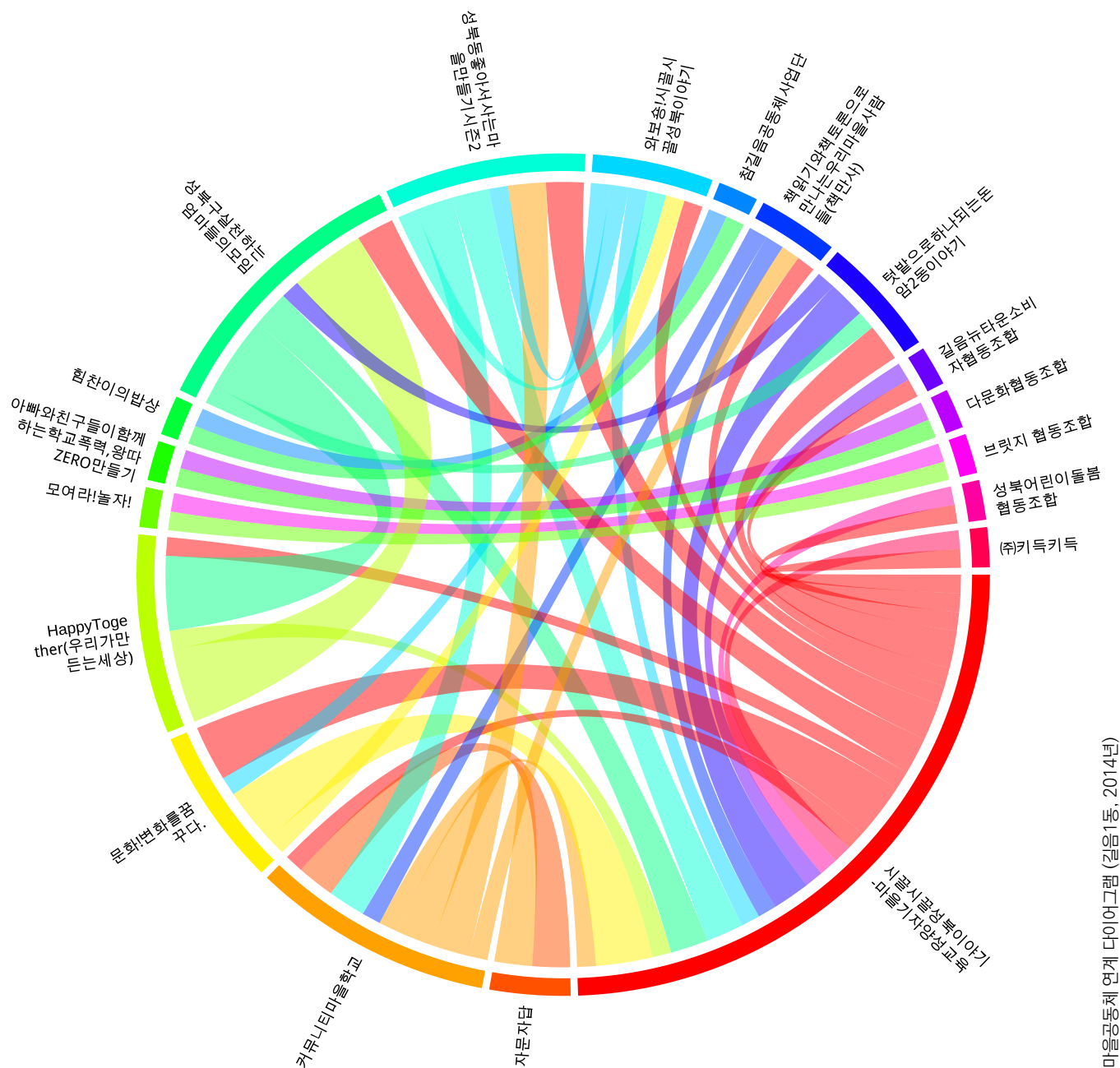


마을공동체 및 사회적경제의 연계과정

둘째, 마을공동체 및 사회적경제의 연계과정을 분석하였다. 마을공동체 사업 및 사회적경제주체 사이의 연관관계는 세 가지 유형으로 분석한다. 1) 동일 시기의 연대와 협동을 의미하는 '연계' 2) 활동의 지속 및 다음 시기로의 영향을 의미하는 연계의 '흐름' 3) 연계의 흐름에 따른 관심주체의 '변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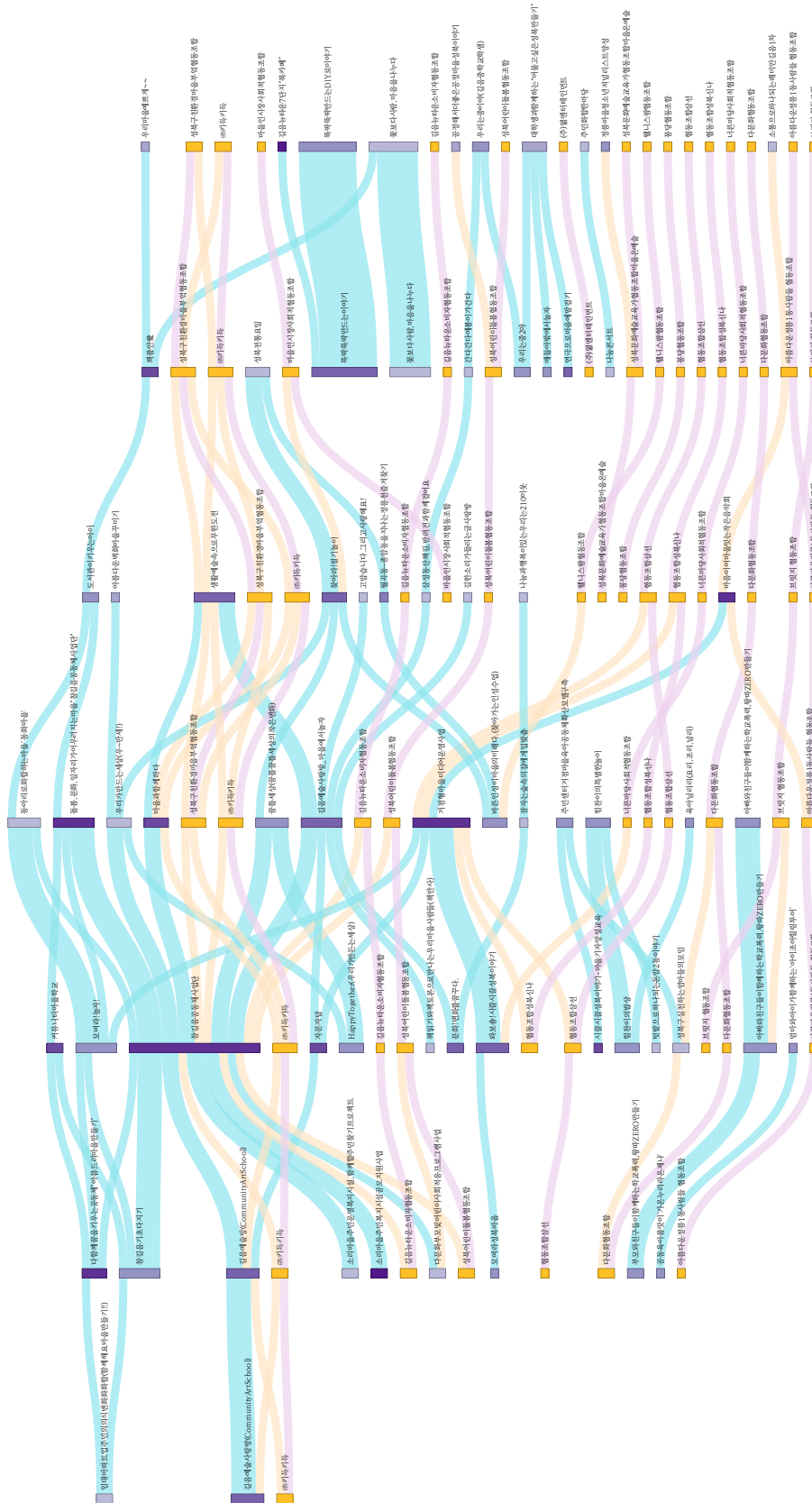
마을공동체 사업의 연관관계는 총 781건, 1,159명이다. 이 중에서 동일시기의 연계는 406건, 562명, 이듬 해 활동과의 연결되는 흐름은 374건, 596명이다. 건수로는 연계가 많지만, 사람수로는 흐름이 더 많다. 행정동별로 살펴보면 연계는 길음1동 140건(176명), 길음2동 20건(27명), 돈암1동 48건(79명), 돈암2동 76건(99명), 동선동 36건(39명), 보문동 13건(22명), 삼선동 57건(65명), 석관동 49건(58명), 성북동 66건(80명), 안암동 4건(4명), 월곡1동 16건(22명), 월곡2동 54건(87명), 장위1동 51건(65명), 장위3동 2건(2명), 정릉1동 31건(46명), 정릉2동 130건(192명), 정릉3동 26건(44명), 정릉4동 12건(16명), 종암동 107건(147명)이며, 흐름은 길음1동 126건(197명), 길음2동 21건(42명), 돈암1동 31건(76명), 돈암2동 53건(108명), 동선동 24건(33명), 보문동 12건(19명), 삼선동 54건(81명), 석관동 33건(39명), 성북동 51건(68명), 안암동 2건(2명), 월곡1동 18건(43명), 월곡2동 39건(69명), 장위1동 37건(67명), 장위2동 2건(2명), 장위3동 1건(1명), 정릉1동 28건(65명), 정릉2동 115건(202명), 정릉3동 23건(66명), 정릉4동 12건(18명), 종암동 116건(192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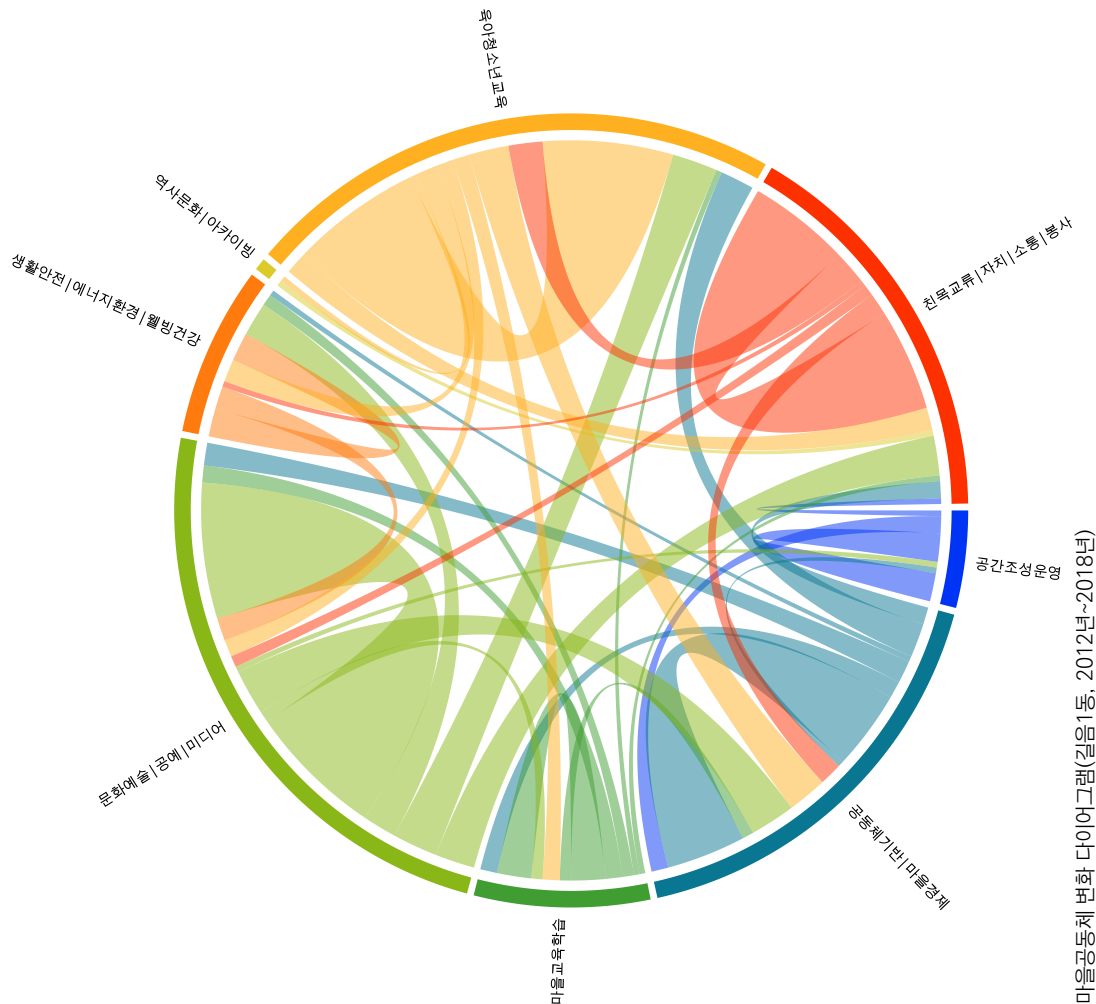
마을공동체 연계 다이어그램 (길음1동, 2014년)

- 코드 다이어그램의 이해 : 다이어그램의 원 주에는 각 모임과 단체가 표시되어 있으며, 호의 길이는 관계를 맺은 정도를 나타낸다. 즉, 호가 길수록 많은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호의 오른쪽 절반은 해당 요소가 보낸 관계를, 호의 왼쪽은 받은 관계를 나타낸다. 영향의 주고 받음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따라서 호의 색깔과 동일한, 호의 오른쪽에서 출발하는 선분은 해당 모임과 단체가 영향을 준 방향이며, 호의 색깔과 다른, 호의 왼쪽으로 들어오는 선분은 해당 모임과 단체가 받은 영향을 의미한다. 따라서 호의 왼쪽이 무지개색에 가까울수록 더 많은 모임과 단체와 영향을 맺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을공동체 사업의 흐름 374건, 596인 중에서 관심주제에 변화가 없는 경우는 125건, 233명, 관심주제에 변화가 있는 경우는 249건, 363명이다. 흐름에서 관심 주제가 달라지는 경우가 더 많다. 행정동별로 살펴보면 같은 길음1동 33건(33명), 길음2동 4건(4명), 둔암1동 6건(6명), 둔암2동 9건(9명), 동선동 8건(8명), 보문동 2건(2명), 삼선동 19건(19명), 석관동 11건(11명), 성북동 20건(20명), 월곡1동 5건(5명), 월곡2동 10건(10명), 장위1동 4건(4명), 장위2동 2건(2명), 장위3동 1건(1명), 정릉1동 12건(12명), 정릉2동 25건(25명), 정릉3동 6건(6명), 정릉4동 3건(3명), 종암동 28건(28명)이며, 변화는 길음1동 93건(93명), 길음2동 17건(17명), 둔암1동 25건(25명), 둔암2동 44건(44명), 동선동 16건(16명), 보문동 10건(10명), 삼선동 35건(35명), 석관동 22건(22명), 성북동 31건(31명), 안암동 2건(2명), 월곡1동 13건(13명), 월곡2동 29건(29명), 장위1동 33건(33명), 정릉1동 16건(16명), 정릉2동 90건(90명), 정릉3동 17건(17명), 정릉4동 9건(9명), 종암동 88건(88명)이다.



마을공동체 흐름 다이어그램(길음1동, 2012년~2018년)



마을공동체 및 사회적경제의 연계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셋째, 마을공동체 및 사회적경제의 연계를 통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사회계정행렬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마을활동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초기활동에 따른 각 부문별 주민참여(활동참여)는 주제분야에 따라 2.88배에서 3.29배 가량의 주민참여를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노력 100시간에 따른 주민참여 촉진(단위 : 시간)

구분		공간조성 운영	공동체 기반 마을경제	마을교육 학습	문화예술 공예 미디어	생활안전 에너지 환경 웰빙건강	역사문화 아카이빙	육아 청소년 교육	친목교류 자치 소통 봉사
일반 참여	공간조성운영	17	18	18	17	17	16	18	15
	공동체기반 마을경제	43	47	46	45	44	42	46	38
	마을교육학습	11	12	12	12	11	11	12	10
	문화예술 공예 미디어	19	21	20	20	20	19	20	17
	생활안전 에너지환경 웰빙건강	31	33	33	32	31	30	33	27
	역사문화 아카이빙	3	3	3	3	3	3	3	3
	육아청소년교육	22	24	24	23	23	22	24	20
	친목교류 자치 소통 봉사	58	62	61	60	59	56	61	51
활동 참여	공간조성운영	101	1	1	1	1	1	1	1
	공동체기반 마을경제	2	102	2	2	2	2	2	1
	마을교육학습	0	0	100	0	0	0	0	0
	문화예술 공예 미디어	1	1	1	101	1	1	1	1
	생활안전 에너지환경 웰빙건강	2	2	2	2	102	1	2	1
	역사문화 아카이빙	0	0	0	0	0	100	0	0
	육아청소년교육	1	1	1	1	1	1	101	1
	친목교류 자치 소통 봉사	3	3	3	3	3	3	3	103
합계	일반참여	204	219	218	213	208	199	216	180
	활동참여	110	110	110	110	110	109	110	109
	전체	314	329	328	323	318	309	326	288

마을활동에 따른 다양한 지출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투입된 재원의 2.28의 경제효과를 가져오고, 이 중 마을 내부의 경제효과 축진은 투입된 재원의 53%였다.

100만원 지출에 따른 경제효과(단위 : 만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내부	2	2	101	1	1	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	20	3	101	3	3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4	7	0	0	100	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5	24	1	1	1	10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외부	6	3	1	1	1	2	115	1	49	5	2	1	1	1	1	1	1	1	20	1	1	2	3
	7	8	6	5	6	9	9	109	10	14	50	26	14	11	47	14	6	15	8	5	4	7	9
	8	5	1	1	1	5	24	1	135	4	2	2	1	2	1	1	3	2	38	2	2	3	6
	9	9	5	7	5	6	5	3	9	160	6	5	6	17	3	6	6	6	6	6	3	4	7
	10	19	14	13	14	23	29	26	29	39	182	35	34	30	28	27	16	49	20	12	9	17	23
	11	14	5	4	5	11	5	9	11	11	15	204	47	25	11	67	5	10	8	7	5	5	11
	12	25	9	7	9	23	6	14	8	9	15	15	169	12	15	23	9	18	7	18	8	7	23
	13	10	2	3	2	4	2	3	5	15	4	6	9	117	3	4	2	3	3	2	1	2	4
	14	7	7	6	7	9	4	7	6	10	10	14	8	7	124	7	6	8	9	5	5	7	9
	15	5	0	0	0	0	0	0	0	0	1	0	1	0	1	100	0	1	0	1	1	1	0
	16	10	4	4	4	6	9	5	20	16	12	11	13	11	6	10	105	8	15	12	4	5	8
	17	6	10	3	10	5	6	16	11	12	15	13	9	8	9	8	13	121	6	5	4	4	5
	18	3	2	1	2	2	1	2	2	3	3	3	2	3	2	2	5	3	102	3	3	3	5
	19	6	11	7	11	3	2	2	3	4	3	3	4	3	2	3	10	4	3	119	7	4	5
	20	43	26	15	26	16	8	14	15	17	17	16	16	15	14	22	26	21	17	27	123	11	16
	21	1	2	1	2	1	1	1	1	1	1	1	1	1	1	1	2	1	1	3	1	101	1
	22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2	3	1	3	2	2	102
합계	내부	53	104	103	104	109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외부	175	108	80	108	126	229	217	316	322	340	358	335	266	269	298	218	272	265	232	182	184	238
	전체	228	212	183	212	235	229	217	316	322	340	358	335	266	269	298	218	272	265	232	182	184	238

○ 마을내부 : 1)마을활동 2)소매 3)음식점 4)인쇄소 5)문화및기타서비스

○ 마을외부 : 6)농림수산물 7)광산품 8)음식료품 9)섬유가죽목재종이 10)석탄석유화학 11)광물금속 12)기계전자정밀기기 13)기타제조업 14)전력 가스수도폐기물 15)건설 16)도소매 17)운송서비스 18)음식점및숙박 19)정보통신방송 20)금융부동산전문서비스 21)공공교육보건복지 22)문화 및기타서비스

한편, 마을활동에 대한 보조금 투입의 효과를 측정한 결과, 100만원 보조금 투입에 따라 주민참여는 430시간, 경제효과는 266만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민참여시간의 가치를 평균 임금으로 가정할 경우 약 696만원의 사회경제적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보조금 100만원의 사회경제적 효과

구분		일반참여	활동참여	합계
주민참여	공간조성운영	23	3	26
	공동체기반 마을경제	60	58	118
	마을교육학습	15	7	23
	문화예술 공예 미디어	27	12	39
	생활안전 에너지환경 웰빙건강	43	12	55
	역사문화 아카이빙	4	3	7
	육아청소년교육	31	25	56
	친목교류 자치 소통 봉사	79	27	106
	전체	282	148	430
경제효과	내부	62		
	외부	205		
	전체	266		
총효과		696*		

연구의 시사점

이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북구의 마을공동체 활동은 상호간 활발하게 연계를 맺는 경우가 많으며, 그에 따른 공동체 활성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동일 시기보다 이후 시기에 연계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 공동체활성화의 효과가 잘 보이지 않더라도 그 효과가 서서히 드러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성북구 마을공동체 및 사회적경제 조직 사이의 관계를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효과를 양적으로 측정하였다. 투입된 자료의 한계와 양적으로 가늠하기 어려운 여러 요소들이 쓰이지 않았음에도, 즉 마을공동체의 일부 요소만 반영하였음에도 충분한 경제효과와 주민참여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이러한 성과는 마을 현장의 주민들이 쏟은 노력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성북구의 마을지원 정책과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중요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행정동별 현황을 살펴보면 아직 마을공동체 활동과 사회적경제가 활발하지 않은 지역도 나타나고 있다. 마을공동체 활동과 사회적경제가 지니는 긍정적인 잠재력을 고려할 때 좀 더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한 이유이다. 따라서 마을공동체 활동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관련 정책을 유지 보완하고 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센터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향후 과제

위와 같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지닌다.

첫째, 마을공동체 사업의 경우 공모사업의 제안서와 결과보고서에만 의존하였기 때문에 전체 마을공동체를 포괄한 연구라 하기 어렵다. 즉, 이 연구에서 밝힌 수치들은 마을공동체가 지닌 잠재 요소의 극히 일부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둘째, 제한된 연구기간으로 인해 주어진 자료에 기록되어 있는 다양한 질적 정보를 연구에 반영하지 못하였다. 향후에는 질적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양적 분석결과와 비교하면서 좀 더 깊이 있는 해석과 마을공동체의 맥락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적경제의 경우 기본적인 업체공개자료 외에는 활용하지 못하였다.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의 관계를 좀 더 명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조직이 마을과 맺는 관계를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 보고서 원문 : <https://sbnet.or.kr/publications/46954/>